

천상의 수면 속으로…특급호텔 비밀병기 쓰세요

특급호텔 ‘시그니처 침구’ 서비스

900개 코일 매트리스·거위털 이불
특성 다른 15개 베개 선택도 가능
고객취향 맞춰 매트리스 탑퍼 선텅



여행

“그곳의 침대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있다.” 화려한 로비, 멋진 레스토랑과 바, 세련된 객실. 특급호텔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들이다. 하지만 호텔 좀 묵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라면 럭셔리 호텔을 말할 때 화려한 외관이나 시설 못지않게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경험해 보면 차이를 확연히 알 수 있는 시그니처 침구 같은 서비스를 꼽는다. “호텔서 잠자는 것이야 거기서 거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웨스턴조선, 롯데호텔, 포시즌스호텔 등이 자랑하는 시그니처 침구는 꽤 오래전부터 투숙객들의 입소문을 통해 인기를 누리고 있다.

●18년 전 ‘침대전쟁’의 주인공, 웨스턴조선의 헤브리 베드

호텔업계 최초의 자체 침구 브랜드인 ‘헤브리 베드’는 18년 전 글로벌 호텔체인 사이에 이른바 ‘침대전쟁’을 불러일으킨 주인공이다. 미국 웨스턴사가 ‘천상의 수면’이



포시즌스호텔 포시즌스 베드

란 슬로건을 걸고 1999년 30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1년간 개발해 내놓은 침대 브랜드다.

기존 침대가 매트리스 위에 바로 침대 시트를 덮는데 반해, 헤브리 베드는 매트리스 바닥과 윗면에 특별 제작된 필로우 탑 매트리스가 깔려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완벽한 완충 효과와 침구가 몸을 감싸 안는 듯한 포근함으로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자랑이다.

매트리스 속에는 900개의 코일이 있어 어떠한 자세에서도 몸을 안정감 있게 받쳐준다. 베개도 취향과 폭신함의 정도에 따라 거위털부터 깃털 알리지 고객을 위한 솜 베개 등 5개를 제공한다.

안락함에 반해 찾는 고객이 많다 보니 요즘은 호텔에서 헤브리 침구를 따로 판매하고 있다.

●브랜드 가치 상승과 수익창출 효과, 롯데호텔 ‘해온’

롯데호텔에는 자체 개발한 베딩 패키지 ‘해온’(he:on)이 있다. ‘자연스런 숙면’을 모토로 2013년 처음 선보인 브랜드이다. 해온은 우리말로 ‘온 누리를 밝히는 해’란 뜻이다.

베딩 패키지 중 매트리스는 세계 3대 침대업체중 하나인 시몬사와 공동으로 개발했다. 탄력과 복원력이 뛰어나 안락한 수면을 제공한다는 코지 폼과 100% 순수 양모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베개와 이불은 소재 자체의 온도와 습기를 조절하는 특성을 지닌 거위털로 만들었다. 특히 이불은 땀의 흡·방습 기능이 탁월한 최고급 헝가리산 거위 앞가슴털로 제작한 것이 자랑이다. 특성이 다른 15개의 베개 중에 원하는 것을 고르는 베개 서비스도 있다.

롯데호텔 역시 해온 침구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2015년부터는 롯데백화점 본점에

해온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4월 오픈 예정인 롯데월드타워의 6성급 호텔 ‘시그니엘 서울’에는 이탈리아의 명품 침구 브랜드 프레테를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취향 맞춰 침대 선텅, 포시즌스호텔 포시즌스 베드

2015년 10월 서울점이 오픈한 포시즌스 호텔은 글로벌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다. 포시즌스에도 ‘포시즌스 침대(Four Seasons Bed)’라는 시그니처 베딩 패키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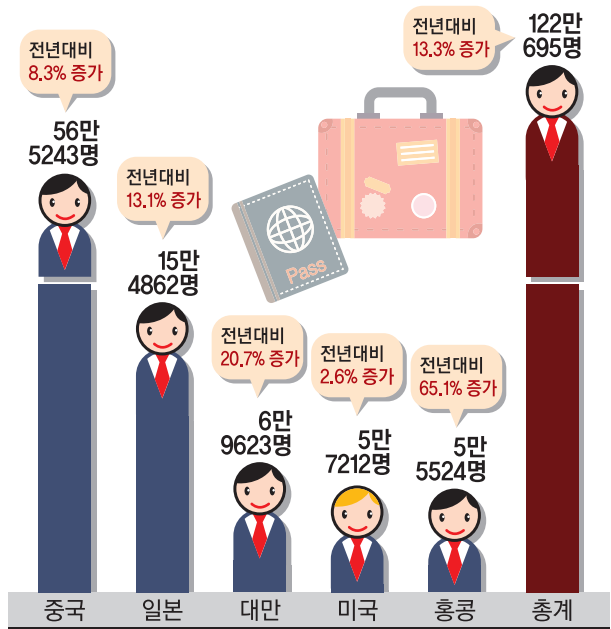
포시즌스 침대의 큰 특징이자 자랑은 고객 취향에 맞춰 침대를 선텅해준다는 것. 고객이 원하는 폭신함의 강도를 3단계(조금 딱딱함, 일반적인 폭신함, 매우 폭신함)로 나누어 이에 맞게 침대 매트리스 탑퍼를 교체한다. 아예 예약할 때 원하는 강도의 매트리스를 미리 요청할 수도 있다. 침대 탑 시트는 300수의 최고급 사틴면을 사용했다. 침대에 4개의 킹사이즈 베개와 흰 오리 솜털과 오리 깃털로 구성된 유료 베개를 함께 제공하는 것도 특징이다.

포시즌스 역시 투숙객을 중심으로 시그니처 침구의 인기가 높아지자 고객이 집에서 포시즌스 베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데이터로 보는 경제 2017년 1월 방한외국인 TOP 5

‘중국관광객은 가족단위가 늘고, 일본은 젊은 여성 재방문객이 늘고…’ 한국관광공사가 발표한 2017년 1월 관광통계에서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겨울방학을 맞아 가족단위 방한객이 증가한 중국과 20~30대 젊은 여성 재방문객이 늘어난 일본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13.3% 증가한 122만695명으로 집계됐다.



※ 자료 : 한국관광공사 '2017 1월 한국관광동계'

기내식의 반란

싱가포르항공, ‘정식당’ 임정식 셰프와 제휴
3월부터 미술랭 스타 레스토랑의 한식 론칭



비즈니스클래스 에피타이저

하늘에서 미술랭 스타 레스토랑의 한식을 맛볼 수 있게 됐다. 싱가포르항공은 3월부터 점심, 저녁 기내식으로 새로운 다이닝 콘셉트 ‘한식’을 론칭한다. 이에 맞춰 ‘뉴 코리아 쿼터’의 스타 셰프인 서울 청담동 ‘정식당’의 임정식 셰프와 제휴, 파스트, 비즈니스, 이코너

미 클래스별로 개발한 기내식 메뉴를 개발해 공개했다.

임정식 셰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미술랭 1스타의 서울 정식당과 2스타를 받은 뉴욕 ‘정식’(JUSIK)을 통해 한식의 고정관념을 깬 창의적인 메뉴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싱가포르항공과의 제휴를 통해 임정식 셰프는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요리를 개발했다. 이 메뉴들은 전 클래스에 제공될 예정이다.

우선 파스트 클래스에는 김부각을 곁들인 목 탕팽채와 고추장 비르블랑 소스를 곁들인 랍스터 구이 같은 메뉴들을 제공한다. 비즈니스 클래스는 그릴갈비와 밥, 당근, 무, 노타리버섯, 찹쌀과 그릴 참치 비빔밥 등의 메뉴로 구성된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석 승객들을 위해서는 들기름 비빔밥 메뉴를 내놓았다. 디저트도 옥수수 무스케이크와 당귀 푸딩 등 임정식 셰프가 개발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임정식 셰프는 “이번 싱가포르항공과의 협업을 통해 한식을 처음 접한 이들에게는 감동을 선사하고, 누구에게든 고향의 맛을 느끼게 해주는 기내식이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식 다이닝 콘셉트의 기내식은 싱가포르 출발과 인천 출발 모든 클래스에서 제공하고, 임정식 셰프의 한식 기내식은 싱가포르 및 LA 노선의 인천 출발 비행편에서 즐길 수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알프스 산맥을 누볐다…영하 40도 눈길을 달렸다

흑한기 테스트 ‘스팅어’, 완성도의 끝판왕

세계 각지서 혹독한 성능·안전시험
기아차 중 가장 빠른 제로백 5.1초



자동차

상반기 국내 자동차 시장의 최대 기대작인 기아차 스팅어가 스웨덴에서 최종 성능점검에 돌입했다. 기아자동차는 스웨덴 북부의 소도시 아르예플로그(Arjeplog)에 위치한 모비스 동계 시험장에서 스팅어의 주행성능 및 안전성 관련 시험 현장을 22일 공개했다. 최종 점검지로 스웨덴을 선택한 이유는 가혹한 기후 조건 때문이다. 아르예플로그는 최저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흑한지역으로 눈길, 빙판 등 자동차와 노면의 마찰이 적어지는 구간이 많다. 이런 환경에서는 자동차의 접지력이 크게 떨어져 자동차가 쉽게 미끄러지기 때문에 차의 주행 안정성을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며 검증해 볼 수 있다. 이곳에서 개발진은 잠금감지브레이크시스템(ABS), 차량자세제어장치(TCS, ESC), 4륜구동(AWD) 등 주행 안정성과 직결된 기능을 흑한기 조건에서 집중 점검중이다.

●세계 각지서 성능 점검 통해 완성도 높여
스팅어는 앞서 뉴르부르크링, 모하비 주행시험장, 알프스 산맥 구간 등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검증과정을 거치며 완성도를 높여왔다.

녹색지옥이라 불리는 독일 뉴르부르크링에서는 1만km이상을 주행하며 내구성을 입증했다. 기아차는 뉴르부르크링에 유럽 차량시험센터와 갖추고 개발 차량들에 대한 서킷 주행을 통해 차량의 승차감, 조정 안정



기아자동차는 22일 스웨덴 북부의 소도시 아르예플로그(Arjeplog)에 위치한 모비스 동계 시험장에서 스팅어의 주행성능과 안전성 관련 시험 현장을 공개했다. 스팅어의 아르예플로그 시험장 주행 장면. 사진제공 | 기아자동차

및 응답성, 서스펜션 특성과 같은 주행 성능은 물론 차량 내구성과 파워트레인 동력 성능 등을 평가해오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모하비 시험장에서는 스팅어의 고속 코너링 성능을 집중 검증했다. 남양연구소에서도 각종 첨단 장비로 외부 주행환경을 재현해 어떤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운행하도록 품질을 끌어올렸다.

현대·기아차 고성능차 개발담당 알버트 비어만 부사장은 “고객들의 안전을 최우선

으로 삼으면서도 재미있고 뛰어난 주행 성능을 즐길 수 있는 차를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제로백 5.1초, 역대 기아차 중 가장 빨라

상반기 국내 출시 예정인 스팅어는 2.0 터보 엔진, 3.3 터보 엔진 선택 가능하며 모두 8단 자동변속기가 적용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기아차 최초로 후륜 구동은 물론 4륜구동 방식도 개발된다. 이 중 3.3 터보 모델의 경우 최고출력이

370마력에 최대토크 52.0kgf·m의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췄으며 제로백(0~100km에 도달하는 시간)이 5.1초에 불과해 기아차가 지금까지 출시했던 차량 중 가장 빠른 차가 될 예정이다.

디자인도 주목받고 있다. 스팅어는 지난 1월 공개 직후 디트로이트 모터쇼 공식 지정 디자인 시상식인 ‘아이즈온 디자인 시상식’(EyesOn Design Awards)에서 양산차 부문 최고 모델로 선정된 바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기다렸다! 레인지로버 벨라

랜드로버가 최고급 레인지로버 라인업의 4번째 모델인 ‘레인지로버 벨라(Range Rover Velar)’의 모델명과 사진을 22일 최초 발표했다.

레인지로버는 1970년 데뷔 이래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최상위 럭셔리 SUV로 인정받고 있다. 새롭게 레인지로버 패밀리에 합류할 ‘레인지로버 벨라’는 레인지로버가 보여준 혁신과 위상을 이어 나갈 모델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다.

‘레인지로버 벨라’는 프리미엄 대형 스포

츠 SUV인 레인지로버 스포츠와 프리미엄 컴팩트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이에 위치하는 모델이다.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 ‘레인지로버 벨라’는 시각적으로 절제의 미를 통한 간결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구현했다. 여기에 레인지로버가 오랜 기간 유지해온 혁신적 테크놀로지도 대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랜드로버 디자인 총괄 디렉터 제리 맥가버ن(Gerry McGovern)은 “‘벨라’는 브랜드에 새로운 차원의 화려함, 현대적 감각과 우아함

럭셔리 SUV 레인지로버 4번째 모델 모델명·사진 발표…내달 1일 실물 공개

을 더한다. 모든 것을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레인지로버 벨라’ 모델명은 1969년 등장하며 럭셔리 SUV 시장을 개척한 최초의 ‘레인지로버 프로토타입’에서 찾을 수 있다. 개발 당시 레인지로버 엔지니어링팀이 사전 제작된 26대 레인지로버 모델의 보안을 유지하고자 라틴어로 ‘숨김(veil)’을 의미하는 ‘벨라레(velare)’를 사용한 것에서 유래했다. ‘레인지로버 벨라’의 실물은 3월 1일(현지시간)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라인업의 4번째 모델인 ‘레인지로버 벨라’가 공개됐다. 간결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구현한 디자인과 혁신적 테크놀로지를 통해 랜드로버의 미래라 평가받고 있다. 사진제공 | 제규어 랜드로버 코리아

생수통 필터 ‘아쿠아블루’ 안심하고 깨끗한 물 마셔요

FDA·NSF 테스트 통과한 소재 사용



블루월드 ‘아쿠아블루’

정수관련용품 전문업체 블루월드의 ‘아쿠아블루’가 주목받고 있다.

여러 기능성소재를 활용해 생수통의 물과 냉온수기 저수조의 수질오염을 방지해주며, 생수의 신선함을 유지해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능성필터다. 기존 ‘블루류’를 업그레이드 시킨 제품으로 미국식품의약국(FDA)과 미국위생협회(NSF)의 테스트를 통과한 소재를 사용해 생수통 내 수질 변질을 막아 주고 저수통 내 오염과 세균번식을 막는데 효과적이다.

현재 미국·동유럽·아시아 지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생수대리점과 생수회사를 중심으로 유통하고 있다. 더불어 약국 유통을 추진 중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백석균 블루월드 사장은 “건강에 가장 소중한 것이 좋은 물을 마시는 것”이라며 “향후 약국으로 유통망을 넓히기 예정인데, ‘아쿠아블루’가 건강 제품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청옥 기자 jiy@donga.com

뉴스디자인 | 이수진 기자